

롯데쇼핑(주), 『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』 개최

롯데쇼핑(주)(대표이사 사장 이인원)는 2001. 9. 19일(수) 오전 11시 30분부터 롯데호텔 37층 가네트룸에서 롯데쇼핑(주) 협력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’을 개최하였다.

이번 선포식을 통해 도입되는 ‘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’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‘롯데그룹 윤리강령’을 개별기업에 구체화한 것으로, 유통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법 위반행위를 예방해 기업이미지를 재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동 프로그램은 임원(급)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해 대표이사 직보체제를 갖추고 자문기구로 자율준수협의회와 제재위원회를 구성했다. 이를 통해 ▲사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, ▲자율준수 선언과 공정거래법 내용을 담은 편람 제작, ▲점포별 법 위반행위 예방 및 점검활동, ▲위반행위 발생시 제재와 점포별 평가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.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원교육 및 전문가 양성

법 위반행위는 대부분 실무자의 법지식 미비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장 근무자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연간 6시간 이상의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, 연 2회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. 또한 점포별 공정거래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.

2. 편람 제작

편람에서는 자율준수 선언문과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의 해설을 담았다. 백화점 영업과 관련된 주요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했으며, 상황별 질문과 답변을 수록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3. 예방 및 점검활동

표시·광고와 관련 있는 각종 광고물은 반드시 공정거래 담당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할 것을 의무화했으며, 위반내용 중 우월적 지위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 불만접수와 병행해 수시로 임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
4. 제재 및 평가

공정거래법 위반사항 발생시 제재 및 제재 결과를 공표하고 점포 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. 점검결과, 법 위반사항 발생시 ‘제재위원회’를 개최해 최고 권고사직에 이르는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. 또한 자율준수관리자가 활동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직보하며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게 했다. 이와 더불어 유형별 채점표를 마련, 점포 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.